

『시론』에 나타난 소쉬르의 사유 이미지

－ 변별적 환원과 문자적 추상화*

최용호**

【 차 례 】

- I. 들어가며
- II. 소쉬르의 두 가지 사유 이미지
- III. 『시론』에 나타난 소쉬르의 사유 이미지
- IV. 나오며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소쉬르의 언어학 사상이라기보다는 그의 사유 이미지다. ‘사상’이 논리적으로 잘 짜인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면 ‘이미지’는 무엇보다 이러한 체계에 앞서서 존재하는 힘들의 자유로운 움직임, 다시 말해 결코 타협할 줄 모르는 물음의 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게 될 소쉬르의 텍스트는 모두 3개다.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단어를 작은 수의 어근으로 환원하기 위한 시론 *Essai pour réduire les mots du grec, du latin et de l'allemand à un petit nombre de racines*』, 『인도유럽어 원시모음 체계에 관한 논고 *Mémoire sur le système primitif des voyelles dans les langues indo-européennes*』, 『일반언어학 강의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가 그것이다. 이 텍스트들은 1874년에서 1911년에 이르기까지 약 40여 년에 걸쳐 작성된 것이다. 이들 하나하나 그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 아님을 먼저 밝히도록 하자. 이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7세 소년 소쉬르에서 57세 노년 소쉬르에 이르기까지 소쉬르는 항상 동일한 소쉬르였다. 다르게 말해 위에 제시된 모든 텍스트에서 동일한 사유의 이미지가 어른겨린다. 앞으로 소

* 본 논문은 2016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학과

쉬르의 사유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것이다. ‘변별적 환원’과 ‘문자적 혹은 용어법적 추상화’가 그것이다. 변별적 환원은 재현적 사유와는 완전히 다른 사유 방식을 가리킨다. 이러한 사유 방식을 가능하게 한 것이 새로운 사유의 질서를 연 문자적 혹은 용어법적 추상화다. 이 두 가지 사유의 움직임이 방금 제시한 소쉬르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에서 우리가 앞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강력한 테제다.

열쇠어: 소쉬르, 사유이미지, 변별적 환원, 문자적 추상화, 시론

모음

A는 흑색, E는 백색, I는 홍색, U는 녹색, O는 남색.

모음이여 네 잠재의 탄생을 언젠가는 말하리라.

A(아), 악취 냄새 나는 돌레를 소리내어 나르는 눈부신 파리의 털 섞인 검은 코르세트.

그늘진 항구, E(으), 안개와 천막의 백색.

거만한 얼음의 창날, 하이얀 왕자, 꽃 모습의 떨림.

I(이), 주홍색, 토해낸 피, 회개의 도취런가. 아니면 분노 속의 아름다운 입술의 웃음이런가.

U(우), 천체의 주기, 한바다의 푸른 요람, 가축들이 흩어져 있는 목장의 평화, 연금술을 연구하는 넓은 이마에 그어지는 잔주름살.

O(오), 기괴한 날카로운 비명이 찬 나팔소리려니, 온 누리와 천사들을 꿰뚫는 침묵. 오오, 오메가! 신의 시선을 보랏빛 광선. (아르튀르 랭보)

I. 들어가며

아돌프 픽테(Adolphe Pictet)의 『인구어의 기원(*Origine des langues indoeuropéennes*)』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한 편의 에세이를 구상한 소쉬르는 그의 나이 17세에, 그러니까 1874년 여름이 끝날 무렵에 처음으로 시도한 언어학적 탐험의 긴 여정을 아래의 고백으로 끝맺는다.

“그러나 나는 꿈속에서 길을 잃고 있으며 우유 짜는 여인의 우화를 상기해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¹⁾

40여 쪽 남짓한 이 에세이의 제목은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단어를 작은 수의 어근으로 환원하기 위한 시론*Essai pour réduire les mots du grec, du latin et de l'allemand à un petit nombre de racines*』이다. 이 『시론』의 존재는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이 1970년 『까이에 드 페르디낭 스 소쉬르』에 그 일부를 소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1978년 데이비스 보이(Davis Boy)가 동 학술지에 전문을 옮김으로써 비로소 한 여름 밤의 긴 꿈의 내용이 환히 드러날 수 있었다. 1903년 자신의 유년시절을 되돌아볼 때 소쉬르는 이 꿈의 작업을 어렵פות이 떠올리며 이를 치기어린 시절의 광기쯤으로 치부한다. 주지하다시피 소쉬르는 3년 뒤, 그러니까 1906년 일반언어학에 대한 3 차례에 걸친 강의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아나그램(anagramme)이라는 고대의 시작법 연구에 빠져들게 된다. 사람들은 아나그램의 소쉬르를 밤의 소쉬르라고 부르고 이 번뜩이는 꿈의 작업을 ‘소쉬르의 광기’²⁾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한다.³⁾ 라캉이 ‘프로이트’를 ‘소쉬르’로 재해석하기에 앞서 밤의 소쉬르는 이미 ‘프로이트적’이었던 것일까? 당시 제네바에서 화제가 됐던 헬렌 스미스(Hélène Smith)라는 이름의 한 영매가 이전에 배운 적도 없는 산스크리트어를 유창하게 말한다는 기이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소쉬르는 산스크리트어 전문가 자격으로 제네바 대학 심리학과 동료 교수 테오도르 플루노이(Théodore Flournoy)의 초청을 받아 몇 차례에 걸쳐 강신술 회합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일화는 이후 플루노이가 펴낸 『인

1) Davis Boy, *Essai pour réduire les mots du grec, du latin et de l'allemand à un petit nombre de racines*, in *CFS* 32, 1978. p.101.

2) 소쉬르의 광기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미셸 데기의 다음의 논문 참조: ‘La folie de Saussure’(in *Critique* 26, 1969, pp.20~46.)

3) Choi Yong Ho, *Le problème du temps chez Saussure*, Paris, L’Harmattan, 2002, pp.116-129.

도에서 화성까지(*De l'Inde à la planète du Mars*)』에 잘 소개되어 있다. 소쉬르의 지적 전기에서 유년의 치기어린 ‘광기’는 이처럼 노년의 원숙한 ‘광기’와 공명한다. 하지만 유년 시절 한 여름 밤의 꿈은 노년 시절의 밤과 달리 결코 어둡지 않다.

처음에 『시론』은 약관의 나이에 발표한 석사학위논문 하나로 19세기 역사언어학의 지형도를 바꾼 그의 천재성이 재확인되고 재검증되는 보충적 자료로서 수용된다. 하지만 이 텍스트의 가치는 이처럼 전기적인 일화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이 문헌자료에는 소쉬르의 독창적인 사유 방식을 낱것 그대로 드러내는 요소들이 담겨있다. 따라서 소쉬르 사유의 일관성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때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텍스트가 『시론』인 것이다. 라이슐러-베글린(M.-J. Reichler-Béguelin)은 「관찰 형태에서 심층 형태로(*Des formes observées aux formes sous-jacentes*)」라는 논문에서 『시론』의 “공시태적이고 무시태적”⁴⁾인 접근이 『인도유럽어 원시모음 체계에 대한 논고』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존 조세프(John E. Joseph)는 『소쉬르(*Saussure*)』(2013)에서 변별성, 선조성, 관념(*idée*), 개념(*concept*) 등 『일반언어학 강의』에서 정식화된 핵심 개념들이 이미 맹아적 형태로 『시론』에 등장하고 있음을 환기한다. 소쉬르의 다른 텍스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소쉬르 연구 환경이 척박한 국내 학계에서도 『시론』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 의의에 대한 논의가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소쉬르』(1998)에서 김방한은 소쉬르의 천재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시론』 내용의 일부를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다. 김현권은 「소쉬르와 역사언어학적 전통」(1998), 「소쉬르의 인도유럽어 원시모음체계와 논고와 일반언어학 강의 방법론적 비교」(2008)에서 『시론』의 의의를 『논고』와 『강의』와의 관련성 속에서 조망한다. 그에 따르면 소쉬르의

4) “현실에 대한 이러한 전유, 하나의 질서가 부여된 이러한 전유는 그 본질에서 공시태적이며 무시태적이다.”(M.-J. Reichler-Béguelin, 1990, p.25)

언어학적 사유는 처음부터 체계성 및 공시성이라는 이념에 이끌렸다. 김성도는 『로고스에서 뫼토스』(1999)에서 『시론』을 그 이론적 쟁점과 더불어 상세히 소개하고 특히 『강의』와의 비교를 통해 소쉬르 사유의 일관성을 드러낸다. 프로테(prote), 뫼테르(deutère) 등 신조어에 대한 선호뿐만 아니라 선조성, 변별자질 등의 개념들이 『시론』에서 비록 아직 잘 정의되어있지는 않지만 이미 정확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시론』(1874)의 소쉬르는 『논고』(1881)의 소쉬르로 이어지고 『강의』(1916)의 소쉬르와도 어긋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시론』의 의의를 소쉬르 사유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논의가 주로 몇몇 개념적 어휘들을 중심으로 소쉬르의 텍스트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에 국한되었다면 이 논문에서는 소쉬르의 사유 방식에 방점을 찍고 비교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개념적 어휘들 간의 유사성을 뛰어넘는 심층적 차원에서의 유사성, 사유의 움직임이 드러내는 유사성이 문제가 될 것이다. 비록 소쉬르의 여러 텍스트들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이 각각 다르다고 하더라도 소쉬르의 사유는 동일한 움직임을 선보인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주장이 될 것이다. 요컨대 소쉬르 사유의 씨앗은 이미 『시론』에서 싹을 틔운 것이다.

II. 소쉬르의 두 가지 사유 이미지

앞서 지적했듯이 『시론』, 『논고』, 『강의』는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고 각각의 주제를 다루는 방식도 각기 다른 텍스트들이다. 하지만 이 세 텍스트에서 소쉬르가 하나의 대상을 상정하고 이 대상에 접근하기 위해 문제를 만들어가는 방식 곧 사유의 움직임은 상당히 유사하다. 『지식의 고고학』에서 푸코는 에피스테메에 이르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을 담

론적 실천(*pratique discursive*)이라고 부른다. 소쉬르 사유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고고학적’ 층위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소쉬르의 여러 텍스트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앞으로 검증해야 할 하나의 가설로 우선 제시하고자 하는 소쉬르 사유의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다. 변별적 환원(*réduction distinctive*)과 문자적 추상화(*abstraction littérale*)가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사유의 움직임이 『시론』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강의』와 『논고』에 등장하는 몇몇 문구에 기대 이 두 개념의 정의를 먼저 제시하도록 하자.

첫째, 변별적 환원. <a, a', a'', a'''.....>라는 하나의 계열이 있다고 하자. 환원한다는 것은 이 계열에 속한 모든 요소들을 단 하나로 요소, 예를 들어 a로 나타내는 것이다. 변별한다는 것은 이 a를 a가 아닌 것, 예를 들어 b와 구별하는 것이다. ‘변별적 환원’이라는 개념이 뜻하는 바는 a가 b와 구별되는 한에서 <a, a', a'', a'''.....>이라는 계열이 a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먼저 이러한 사유 방식이 재현적 사유와 완전히 다른 것임을 지적하도록 하자. 소쉬르가 19세기를 닫고 20세기를 연 세기의 사상가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변별적 환원이라는 이러한 그의 독특한 사유 방식 덕분이다.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일반언어학 강의』 2부 「공시언어학」 제4장 「언어 가치」에서 가치의 “문제 전체”를 밝힐 수 있는 적절한 사례로 제시된 문자 체계에 대한 논의 가운데 다소 긴 다음의 문구를 인용해보도록 하자.

문자 체계라는 또 다른 기호 체계에서 동일한 상태가 확인되므로, 우리는 이를 비교 사항으로 삼아서 문제 전체를 밝혀 보겠다. 사실,

1. 문자 체계의 기호는 자의적이다. 예를 들어 문자 t와 이것이 지칭하는 소리 사이에는 아무 관계도 없다.
2. 문자의 가치는 순전히 부정적이고 차이적이다. 가령 한 사람이 t를 쓸 때, 다음과 같은 변이형들로 쓸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중요한 것은, 그

의 필체에서 이 기호가 l, d 등의 기호와 혼동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t T f

3. 문자 체계의 가치들은, 규정된 체계 내에서 그들 상호간의 대립에 의해서만 작용하는데, 이 체계는 한정된 수의 문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특성은 제2의 특성과 동일하지 않으나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이유는 두 특성이 모두 제1의 특성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서기 기호는 자의적이므로 그 형태는 거의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더 적절히 표현하면, 체계가 부과하는 한계 내에서만 중요하다.
4. 기호의 생산 수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는 체계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점 역시 제1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문자를 흰색으로 쓰건 검은색으로 쓰건, 음각으로 하건 양각으로 하건, 펜으로 쓰건 끝으로 파건, 그 의미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⁵⁾

위에서 소개한 변별적 환원이라는 개념 정의에 따라 위의 텍스트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t T f.....>라는 계열이 있다고 하자. 환원한다는 것은 이 계열에 속한 모든 요소들을 하나의 요소, 예를 들어 t로 나타내는 것이다. 변별한다는 것은 t를 t가 아닌 다른 것, 예를 들어 l과 구별하는 것이다. 변별적 환원이 뜻하는 바는 t가 l과 구별되는 한에서 <t T f.....>라는 계열이 t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고의 움직임이 구조주의의 중핵을 형성하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변별적 환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자의성과 체계성이 그것이다. 이 두 조건이 서로 상충된 것임에 주목하도록 하자. 한편으로 변별적 환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차이화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의성이 이러한 전제조건을 구성한다. 다른 한편으로 변별적 환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차이화의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어느 한 시점에서 중단되어야 하는데 체계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체계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변별적 관계는 성립될 수 없고 변별성

5) 소쉬르, 최승언 옮김, 『일반언어학 강의』, 민음사, 1990, 142쪽.

이 담보되지 않으면 하나의 기호는 무한한 차이화의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때 필체상의 차이는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다시 말해 t가 l과 변별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면 <t T t.....>는 무한한 차이화의 과정에 노출될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자의성은 차이의 가능 조건이다. “문자 t와 이것이 지적하는 소리 t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마디로 문자 t의 내부는 텅 비어 있다. t는 자기 자신인 적극적 속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닌 것에 소극적·부정적·차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다. 소쉬르에 따르면 “언어와 다른 모든 인간적인 것들과의 유추에서 결함이 존재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 기호들의 내적 무가치성. [2] 그 자체로 무가치한 하나의 항에 집착하는 우리 정신의 능력.”⁶⁾ 이는 가치의 근본적인 불안정성 곧 무한한 차이화의 역량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불안정성에 대한 해법이 위에서 세 번째로 제시된 체계성의 원리다. 문자 t가 문자 l과 구별된다는 것은 체계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알파벳 문자 체계가 그것이다. 『논고』에서 소쉬르는 예를 들어 원시 모음 e를 음성적 측면이 아니라 형태론적 측면, 다시 말해 <Ce : Co : C>(C=자음), <Cei : Coi : Ci>, <Cem : Com : Cm> 등 이른바 모음변이의 측면에서 고려한다. 모음변이는 영어의 <sing : sang : song>과 같이 음성변화가 형태론적 변화를 수반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e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음성적 자질이 아니라 이처럼 형태론적, 다시 말해 체계적·구조적 관계인 것이다. 이러한 사유 방식은 오직 음성의 물리적 자질만을 천착했던 당시 실증주의 경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형태론적 체계성에서 비롯된 이러한 변별성을 기점으로 소쉬르는 인도유럽어의 모음들을 e, 즉 a1로 환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문자적 추상화. 위에서 제시한 원시모음 체계는 모음변이 현상, 예를 들어 <Cei : Coi : Ci>의 관계를 잘 설명해준다. 이 과정에서 『논고

6) Saussure F. d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Edition critique par Roulodolf Engler tome 1. Wiesbaden, Otto Harassowitz, 1967, p.38.

』의 가장 혁신적인 사유가 출현한다. 문자적 추상화가 그것이다. 원시모음 체계는 기본적으로 $a_1(=e)$ 와 $a_2(=o)$ 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유럽어의 기본모음을 골격으로 한 체계이다. 소쉬르는 여기에 “문자 A”(la lettre A)를 추가한다.⁷⁾

부르크만은 유럽어 e의 원형을 a_1 으로 표기했다. a_2 는 지금까지 우리가 o라고 부른 음소다. 그리스-이탈리아어 a에 해당하고 북유럽어 a의 절반을 구성하는 이 세 번째 음소는 $e(a_1)$ 에도 $o(a_2)$ 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문자 A로 표기하고자 한다. 여러 가능한 a 유형들을 잠정적으로 추상화함으로써 우리는 다음의 도표를 얻을 수 있다. :

북유럽어	원시상태	그리스-이탈리아어
e	a_1	e
a	a_2	o
	A	a

주지하다시피 19세기 비교문법은 특히 낭만주의의 영향으로, 다시 말해 가장 완벽하고 순수한 상태의 언어 곧 인도유럽어 조어(祖語)에 대한 열정 덕분에 발전할 수 있었다. 이 가설적 언어가 존재하는 질서는 상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 상상의 질서를 재구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학적 태도는 낭만주의가 아니라 실증주의다. 쉐라이어허(Schleicher)는 이러한 실증주의에 기대 언어학이 인식론적으로 자연과학에 속한다고 장담할 수 있었다. 가설적 언어의 재구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시 말해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언어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실증주의적 요구다. 예를 들어 a_1 와 a_2 는 그것이 하나의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7) Saussure F. de., *Mémoire sur le système primitif dans les langues indo-européennes*, Leipzig, Teubner, 1879, p.52.

기존에 존재하는 유럽어 e와 o를 각각 지칭한다. 뿐만 아니라 인도유럽어 원시모음 체계를 구성하는 e, ei, eu, er, em, en 등은 모두 이로부터 파생된 자매어들 안에서 기존에 이미 발견된 것들이다. 이들의 음가는 모두 이미 정해진 것들이다. 반면 A는 비록 그리스-이탈리아어 a에서 착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음소가 아니라 “하나의 문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의 음가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른바 반(半)자음이라는 음가는 당시 도저히 A에 부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A가 단순히 상상적인 것만도 아니다. A라는 자리 자체가 설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는 *hísteAmi > hístāmi에서처럼 장모음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A가 탈락되고 그 자리에 흔적이 남아 그 영향으로 e가 ā로 장음화된 것이다. 『논고』 52쪽에서 문자 A가 인도유럽어 원시 모음 체계에 기입되는 순간 이 체계는 더 이상 상상적인 것도 실제적인 것도 아닌 상징적인 것이 된다. 『논고』의 천재성이 가장 돋보이는 순간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반자음 A가, 다시 말해 문자 A가 기입되는 순간이다. 소쉬르는 변별적 환원으로 인도유럽어의 모든 모음을 하나의 모음 곧 a₁(=e)으로 환원하고, 문자적 추상화로 새로운 사유의 질서 곧 상징적 질서를 연 것이다.

언어학 개론서에 종종 등장하는 소쉬르의 언어학 이론은 주로 몇 개의 이분법들로 요약되어 있다. 이를테면 공시태/통시태, 랑그/파롤, 시니피앙/시니피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군의 이분법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모두 소쉬르가 심혈을 기울여, 다시 말해 비판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시적 영감으로 고안해 낸 것들이다. 예를 들어 ‘시니피앙(signifiant, 기표, 표현)’과 ‘시니피에(signifié, 기의, 내용)’라는 두 용어는 일반언어학 제3차 강의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 그러니까 1911년 5월 19일에 가서야 비로소 확정된 것이었다. 이러한 용어법적 혁신은 새로운 사유 질서의 도입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소쉬르의 신조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문자적 추상화라는 그의 사유의 움직임을 대변하는 것

이다. 문자적 추상화를 용어법적 추상화라고 부르도록 하자. 추상화가 ‘떼어내는’ 것이라면 용어법적 추상화는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떼어내는’ 것이다. 떼어내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떼어내기는 사유의 공간내기다. 시니피앙(signifiant)과 시니피에(signifié)는 ‘signifier’라는 기호(signe)에서 파생된 동사의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를 각각 가리킨다. 이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가 서로 환원 불가능하면서도 분리 불가능하다는 사실, 다시 말해 이들의 이중 구속을 개념적으로 포착하기에 앞서 먼저 문법적으로, 용어법적으로, 언어적으로 예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용어법적 추상화 덕분에 새로운 기호학적 질서, 말하자면 환원 불가능하면서도 분리 불가능한 두 요소로 이루어진 소위 “기이한 결합 전체”⁸⁾로서의 기호학적 질서가 창출될 수 있었다. 공시태(synchronie)와 통시태(diachronie)는 ‘-chronie’라는 공통의 어근이 잘 보여주듯 언어의 시간적 존재방식에 방점을 찍는다. ‘언어 상태’(état de la langue), 언어 변화(changement de la langue) 등의 용어에 비해 이들이 갖는 장점은 이러한 존재양태의 이중성을 함축적으로, 다시 말해 용어법상으로 잘 요약한다는 것이다. 공시태의 ‘공(syn-, 共)’은 ‘함께 있는 것’을 가리키고 통시태의 ‘통(dia-, 通)’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 두 질서의 차이는 근본적인 것이다. 『논고』에서 소쉬르가 천착한 모음변이라는 형태론적 질서는 공시태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모든 것이 모든 것과 관련을 맺고 존재한다. 인도유럽어 원시모음 체계에 A라는 문자를 기입함으로써 열린 것이 바로 이러한 관계적 질서다. 반면에 (역사)음성학적 질서는 통시태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서로 다른 시간대에 따로 존재하는 개별적 요소들만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전자가 ‘체계적(systémique)’이라면 후자는 ‘원자적(atomique)’이다. 구조음운론을 완성한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이 19세기 역사언어학을 비판한 것은 그것이 이처럼 언어의 변화를 체계적인 것이 아니라 원자적

8) 소쉬르, 『일반언어학 노트』, 인간사랑, 2007, 38쪽.

인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⁹⁾ 『언어의 이중 본질에 대하여』 이후 소쉬르는 유추의 조건이 되는 형태론적 질서를 좀 더 포괄적인 새로운 문제의 틀로, 다시 말해 기호학적 질서로 재해석한다. 그가 통시태보다 공시태를 더욱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 이유는 다름 아닌 공시태 속에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결합 단위인 기호가 온전히 포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기호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기호들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이러한 기호학적 관계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적 양태가 곧 공시태인 것이다. 이처럼 공시태라는 용어의 도입으로 새로운 사유의 질서, 말하자면 모든 것이 모든 것과 관련된 관계적 사유의 질서가 ‘추상화’된다. 이 질서 위에 존재하는 언어는 어떤 것일까? 소쉬르의 ‘랑그’는 무엇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랑그’라는 새로운 용어는 공시적 질서 속에서 기호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의 총체를 지칭한다. 주지하다시피 소쉬르는 개인의 통제 하에 놓여 있는 파롤과 이러한 통제에서 벗어난 랑그를 구분한다. 전자는 실제적으로, 후자는 잠재적으로 존재한다. 파롤은 랑그의 구체적인, 다시 말해 개인적인 실현이며, 랑그를 전제하지 않은 파롤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랑그는 궁극적으로 파롤로 실현되어야 한다. 언어활동을 랑그와 파롤의 이러한 변증법적 관계의 총체로 규정함으로써 소쉬르는 구체적이면서도 전적인 언어학의 대상에 접근하려고 했다.

후자에 따르면 상술한 소쉬르의 구분들은 그 당시 이미 세간에 떠도는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게오로그 폰 가벨렌츠(Georg von Gabelentz)는 소쉬르보다 앞서서 공시태와 통시태, 랑그와 파롤 등의 구분을 도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어학에서만뿐만 아니라 사회학 영역에서 전개된 예를 들어 뒤르카임(Emile Durkheim)과 타르드(Gabriel Tard)의 유명한 논쟁이 사회적 사실(뒤르카임)로서의 랑그와 개인적 행위(타르드)로서의

9) Jacobson Roman, ‘Principes de phonologie historique’, in Troubetzkoy, *Principes de phonologie*, Paris, Klincksieck, 1931(1976), pp.315-336

파를을 구분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쉬르의 공헌은 이처럼 세간에 떠도는 생각들을 하나의 체계로 엮은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쉬르의 영향관계를 재구성하려는 언어학사가들의 이러한 시도는 환영할만한 것이다. 소쉬르가 정교하게 잘 짜여진 자신만의 고유한 사유 시스템을 제시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언어의 이중 본질에 대하여』 첫 문장은 대여섯 가지 언어학적 진리 가운데 특정한 이런저런 진리에 특권을 부여하는 일이 가능한 일이 아님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런저런 언어학적 진리에 특권으로 부여함으로써 확고한 출발점으로 삼고자하는 일은 사실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여섯 가지의 근본적 진리는 존재한다. 이들은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아무런 차별 없이 어느 곳에서든 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느 한 지점으로부터 출발하더라도 다른 모든 진리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무한한 분지에 논리적으로 도달하게 될 것이다.¹⁰⁾

위에서 언급된 대여섯 가지 언어학적 진리는 『강의』에서 이분법적 형식으로 정식화될 것이다.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 출발하더라도 마치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 듯 항상 동일한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게 소쉬르의 주장이다. 앞서 소쉬르의 이분법을 소개한 순서, 다시 말해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구분에서 시작해서 공시태와 통시태 구분을 거쳐 랑그와 파를의 구분에 이르고 다시 기호학적 질서로 되돌아간 논의의 순서는 이러한 순환 논리를 잘 보여준다. 이를 명제의 형식으로 요약해보자. 기호는 공시태의 조건이고 공시태는 랑그의 조건이며 랑그는 기호의 조건이다. 이처럼 소쉬르의 이분법들은 어디에서 출발하더라도 항상 처음의 그 자리로 되돌아오는 정교하게 잘짜여진 이론적 체계를 형성한다. 하지만 소쉬르의 궁극적인 공헌은 세간에 떠도는 생각들을 단지 직

10) 소쉬르, 『일반언어학 노트』, 2008, 37쪽.

조한 것에 있다기보다 새로운 사유의 질서를 활짝 연 것에 있다. 그동안 언어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언어는 줄곧 고대의 문헌 자료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이 자료로서의 언어를 여기서 꺼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공간으로 옮긴 것이 용어법적 추상화라는 시적인 사유의 움직임이다. 소쉬르는 일반언어학 3차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1910년 11월 4일 강의 개요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1) 언어들(Les langues), 2) 랑그(La langue), 3) 개인의 언어 능력과 사용(Faculté et exercice du langage chez les individus). 19세기에 언어들(les langues), 예를 들어 라틴어, 그리스어, 고트어 등을 비교 가능하게 한 것은 산스크리트어였다. 강의 개요에 잘 드러나 있듯이 이제 이 자리에 랑그가 들어선 것이다. 랑그는 단순히 언어학의 대상이 아니다. 산스크리트어가 비교문법의 조건이듯 랑그는 언어학의 조건인 것이다. 소쉬르의 언어학을 랑그의 언어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언어들을 비교해서 궁극적으로 인도유럽어 조어를 재구하려는 것이 19세기 역사비교언어학의 숭고한 목적이었다면 이제 “언어학자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관찰된 것의 일체로부터 ‘일반적인’ 것”¹¹⁾ 곧 ‘랑그’에 다다라야 한다. 공시태라는 사유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랑그도 존재할 수 없다. 랑그라는 사유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호들의 자유로운 놀이는 불가능하다. 용어법적 추상화가 겨냥하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사유의 공간내기다. 들뢰즈는 20세기 새로 등장한 사유의 질서를 상상적인 것도 실재적인 것도 아닌 상징적인 것으로 규정한다.¹²⁾ 용어법적 추상화로 소쉬르가 도입하고

11) Saussure F. de., Troisièm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1910-1911), d'après les cahiers d'Emile Constantin, Saussure's Third Course of Lecture on General Linguistics(1910-1911), edited and translated by Eisuke Komatsu & Roy Harris, Oxford/New York/Tokyo, Pergamon Press, 1993, p.11.

12) 예를 들어 들뢰즈는 「구조주의를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 번째 기준: 상징적인 것. 우리는 현실적인 것(le réel)과 상상적인 것(l'imaginaire)의 구분이나 상관관계에 익숙해져 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조건 지어져 있다. 우리의 사유는 늘 이 두 개념 사이의 변증법적 놀이를 시도한다. 고전 철학이 지성이나 순수 오성에 대해 말할 때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늘 상상

자 한 것이 바로 이 상징의 질서다. 그가 단순히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가 아니라 20세기 사유의 지평도를 새롭게 그린 세기의 사상가로 간주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Ⅲ. 『시론』에 나타난 소쉬르의 사유 이미지

앞에서 논의한 소쉬르 사유의 두 가지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론』의 텍스트를 분석해보자. 『시론』에서 소쉬르는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의 단어들을 몇 개의 어근(語根)으로 환원하는 야심찬 작업에 착수한다. 여기서 그의 사유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방법적’ 환원이다. 소쉬르는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의 모든 단어들을 단일음절로 이루어진 일군의 기본어근으로 환원한다. 기본어근을 형성하는 것은 세 개의 자음 곧 k, p, t이다. 이러한 과감하고 과격한 환원을 실행에 옮긴 것은 세 자음의 조합만으로도 모든 어근들을 ‘유의미하게’ 구별해낼 수 있다는 소쉬르의 확신 덕분이었다. 이 확신이 구조주의적이었음을 곧 보게 될 것이다. 자

작용의 능력들과 관련해 또 그에 대립해 심층적 현실/실재, ‘참된’ 현실/실재, 현실/실재 자체를 파악하는 능력이었다. 매우 상이한 창조적 운동들을 열거해 보자. 낭만주의, 상징주의, 초현실주의 이들은 때로 현실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이 서로 관통하고 서로 결합하는 초월적 점을 제시한다. 또 때로 그들[현실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의 날카로운 경계선을 그들의 차이를 가르는 선으로서 제시한다. 어쨌든, 낭만주의, 상징주의 등에 대한 전통적 해석에 입각하는 한, 이 모두는 상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대립과 상보에 입각해 있다. 프로이트주의까지도 두 가지 원리 - 기만하는 힘을 동반하는 현실 원리와 환각적인 만족의 힘을 동반하는 쾌락 원리 - 의 관점에서 해석된다. 더 나아가 융과 바슐라르의 것들을 비롯한 방법들은 현실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 그들의 복잡한 관계의 틀 - 초월적 통일성과 모두(冒頭)의 긴장, 융합과 갈라짐 - 내에 위치한다. 그런데 구조주의의 첫 번째 규준은 바로 제3의 질서, 제3의 영역, 즉 상징적인 것(le symbolique)의 질서/영역의 발견이다. 상징적인 것을 상상적인 것과도 현실적인 것과도 혼동하지 않으려는 것이 구조주의의 일차적 차원을 구성한다. 여기에서도 역시 모든 것은 언어학과 더불어 시작한다. 현실적인 말과 그 음성적 부분들을 넘어, 말들에 연합되는 개념들과 이마주들을 넘어서, 구조주의 언어학은 전혀 다른 본성의 한 요소, 즉 구조적 대상을 발견한다.(『구조주의를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in 『의미의 논리』, 559-560쪽.)

음과 달리 모음은 소년 소쉬르의 시적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그것이 떠도는 어느 하늘 아래에서 그 어느 빛깔이라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한 어근을 다른 어근들과 구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모음의 역할은 오직 음절을 구성하는 것에 국한된다. 인도유럽어 원시모음 체계에 관심을 두기에 앞서 소년 소쉬르는 원시자음 체계에 착목했던 것이다. 소쉬르의 충실한 독자라면 이미 눈치 챌겠지만 이처럼 소쉬르의 무모한 환원적·추상적 접근의 밑바탕에는 구조주의의 근간이 되는 소위 변별성이라는 기준이 작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입각해서 소쉬르는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의 모든 단어의 어근을 이 세 자음으로 환원했던 것이다. 이 환원은 이중으로 전개된다. 변별적 환원과 문자적 추상화가 그것이다.

첫째, 변별적 환원. 먼저 자음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계열이 존재한다. 계열은 하나의 요소로 환원된다. <g, c, ch, h....>는 후음이라는 계열에 속한 것으로 이 계열은 자음 k로 환원된다. <b, m, f, v.....>는 순음이라는 계열에 속한 것으로 이 계열은 자음 p로 환원된다. <d, n, s, z, l, r.....>은 치음이라는 계열에 속한 것으로 이 계열은 자음 t로 환원된다. 우선 이러한 환원의 논리는 발생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후음 계열에 속한 자음들은 모두 k에서, 순음 계열에 속한 자음들은 모두 p에서, 치음 계열에 속한 자음들은 모두 t에서 각각 출현한 것이다. 발생론적으로 볼 때 이 세 자음도 출현 시기에 따라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자음의 기원은 기음(氣音, aspiration)이고 기음의 기원은 모음이다. 주지하다시피 공기가 구강을 통과하면서 저항을 받지 않을 경우 모음이 되고 저항을 받을 경우 자음이 된다. 공기 저항의 정도에 따라 자음의 출현 순위가 정해진다고 가정해보자. 말하자면 공기의 저항을 가장 적게 받으면서 즉, 후두부의 미세한 자극만으로 출현한 자음이 후음 k이고 가장 단순하게 받으면서, 다시 말해 입술의 움직임만으로 출현한 자음이 순음 p이다. t는 혀와 이와 경구개를 모두 거쳐서 형성된 가장 자음

다운 자음이다. 발생론적으로 자음의 탄생 순서는 k, p, t인 것이다. 소쉬르는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의 원시적 단계에서는 어근에 오직 k, p, t 세 자음만이 존재했을 것으로 확신한다. 기타의 자음들은 이후의 발전 단계에서 도출된 것들에 불과하다. 다음의 사실을 강조하자. 『시론』의 백미는 이러한 발생론적 접근에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접근이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도 아니다. 『시론』의 가치는 다른 데 있다. 요컨대 후음이 k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k가 예를 들어 p와 구별되는 한에서이다. 이를 위해 소쉬르는 또 다른 유형의 환원을 시도한다.

둘째, 문자적 추상화. 『시론』은 원시 유럽어의 어근을 다룬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어근의 역사적 발전(développement historique)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 역사언어학적 문제는 제기되자마자 곧바로 어근의 구조라는 문제로 탈바꿈한다. 문자적 추상화는 이러한 논점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간단히 말해 소쉬르는 소문자 k를 대문자 K로 다시 쓴다. k를 K로 다시 쓰는 것, k라는 자음의 음성적 속성을 괄호 안에 넣고 K라는 대문자로 이를 대체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문자적 추상화다. 이를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불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현상학적 환원이 본질 직관으로 향한다면 문자적 추상화는 문자 자체로 향한다. K는 오직 P와 구별되는 한에서 K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P는 K와 구별되는 한에서 P이다. 이처럼 문자적 추상화는 앞서 살펴본 변별적 환원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다. 예를 들어 보자. 소쉬르의 기호학 개념은 방법론적으로 조야한 것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말한다. 이보다 더욱 유익한 것이 바다에 가면 물고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아닐까? 기호학사에서 소쉬르의 공헌은 기호학적 분석 방법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저기 저 바다에’ 기호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예고한 것에 있다. 새로운 사유의 질서를 여는 것은

무엇보다 시적 영감이 필요한 것이다. 소쉬르는 ‘기호학’이라는 잘 정의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문자를, 하나의 용어를 제안한 것이다. 바로 이 문자, 이 용어가 기호학이라는 바다로 안내하는 이른바 표지판의 역할을 한 것이다. 문자적·용어법적 추상화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변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 모음도 이중으로 환원된다. 변별적 환원. a, e, o 등은 모음의 계열에 속한 것으로 이 계열은 모음 a로 환원된다. 문자적 추상화. 소쉬르는 이 모음 a를 대문자 A로 다시 쓴다. 여기서 A는 하나의 속성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음과 함께 음절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에서 A인 것으로 다루어진다. 이처럼 소쉬르는 『시론』에서 이중의 환원, 즉 변별적 환원과 문자적 추상화를 통해 원시 유럽어 어근의 구조에 다가간다. k는 후음이라는 하나의 속성을 대표한다. 이와 다르게 K는 하나의 장소를, 하나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다. 장소는 속성과 달리 항상 다른 장소와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 k의 속성은 k 자체의 속성 곧 후음에 의해 결정되지만 K의 위치는 K가 아닌 다른 것, 예를 들어 P와 T와의 관계에 의해 정의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소쉬르가 모든 자음을 K, P, T로 환원한 것은 이 세 자음만으로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단어들의 어근의 의미를 변별적으로 구별해낼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소쉬르는 어근 음절이 두 개의 자음과 한 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다르게 말해 이들만으로도 어근 음절을 식별해내는 데 필요한 변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음절’이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 변별적 관계는 순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소쉬르가 제시한 순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이다. 모음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자음 중 어느 자음이 첫 번째 자리에 오고 어느 자음이 두 번째 자리에 오느냐에 따라 유의미한 구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해보자.

소쉬르는 원시 단계에서 어근이 단일음절로 이루어져있다고 가정한다. 기본어근을 형성하는 단일음절은 모음 A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자음이

앞뒤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쉬르는 앞에 오는 자음을 ‘프로테(prote, 첫 번째)’라고 부르고 뒤에 오는 자음을 되테르(deutère, 두 번째)라고 부른다.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의 모든 단어의 뿌리가 되는 9개의 기본어근은 아래와 같다.

KAP KAT KAK

PAP PAT PAK

TAP TAT TAK

예를 들어 KAP와 PAK는 프로테와 되테르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어근으로 간주된다. 프로테와 되테르의 위치에 어느 자음이 오느냐에 따라 어근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처럼 자음의 변별적 기능은 선적 순서에 의해 결정된다. 『강의』에서 소쉬르는 dix-sept가 sept-dix로 치환될 수 없는 이유가 언어 기호를 지배하는 선적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른바 시니피앙의 선적 특성은 기호의 자의성을 제한하는 문법의 조건을 구성하는 원리로 정식화한다. 『시론』에서 기호의 자의성의 원리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처럼 변별성의 공리와 더불어 선조성(linéarité)의 원리는 핵심 요소로 다루어진다. 위의 목록에, 발생론적으로 가장 나중에 출현한 유음 R과 L이 보충됨으로써 6개의 기본어근이 새로 추가된다.

KAR KAL

PAR PAL

TAR TAL

요컨대 총 15개의 기본 어근이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의 모든 단어들의 뿌리인 것이다. 소쉬르는 예를 들어 TAP를 어근으로 하는 어휘들을 경험적으로 조사하여 이들을 모두 TAP의 범주에 귀속시킨다. TAP는

‘붕괴되다’, ‘숨 막히다’, ‘소리를 죽이다’, ‘납작하게 하다’, ‘적당한 것’, ‘두드러지지 않은 것’, ‘낮은’, ‘겸손한’, ‘짧은’, ‘두터운’, ‘무거운’, ‘따분한’, ‘둔감한’, ‘무기력한’ 등 광범위한 어휘군을 포괄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들 각각의 어휘가 지닌 의미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은 TAP는 하나의 관념(idée)을 표현하는데 이 관념은 다른 관념, 예를 들어 PAT가 표현하는 관념과 변별적으로 구별된다. 다시 말해 ‘붕괴되다’, ‘숨 막히다’, ‘소리를 죽이다’, ‘납작하게 하다’, ‘적당한 것’, ‘두드러지지 않은 것’, ‘낮은’, ‘겸손한’, ‘짧은’, ‘두터운’, ‘무거운’, ‘따분한’, ‘둔감한’, ‘무기력한’ 등이 TAP라는 하나의 관념으로 환원되는 것은 TAP가 PAT와 변별되는 한에서다. 이처럼 『시론』에 등장하는 ‘관념’은 『강의』에서 개진된 가치 개념을 선취하고 있다. 관념은 오직 차이에 의해서만, 다시 말해 변별적으로만 정의되는 개념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변별적 놀이의 장이 문자적 추상화를 통해 열린 것이다. 이중의 환원을 가능하게 한 이념이 변별성이라는 개념이라면 그것이 겨냥하는 것은 오캄의 면도날이 지닌 설명의 경제성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질서는 순수한 관계적 사유를 위한 공간과 다른 것이 아니다. 소쉬르의 방법론을 단순히 환원주의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소쉬르가 단행한 환원은 재현적 질서가 아니라 변별적 질서에 속한 것이다. 이러한 질서의 가능 조건이 문자적 추상화인 것이다. 변별적 환원과 문자적 추상화라는 이중의 환원을 통해 소쉬르가 새롭게 도입하고자 한 것은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를테면 순수하게 기하학적인 질서다. 17세의 소년 소쉬르의 꿈속에서 빚어진 이러한 관계적 사유가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50여 년 동안 소쉬르의 언어학 사상을 지배했다. 이 사상이 20세기를 연 것이라고 감히 주장한다면 이는 과잉해석일까? 들뢰즈는 20세기의 공간을 라캉의 용어를 빌려 실재적인 것도 상상적인 것도 아닌 상징적인 것으로 규정한다.¹³⁾

13) 앞의 주 8) 참조.

소쉬르의 관계적 사유가 새롭게 연 것이 바로 이러한 상징적 공간의 질서이다. 이 질서 안에서 변별적 기호들의 자유로운 놀이가 펼쳐지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변별적 공간이 구축되고 나면 이 공간이 허용하는 한계의 범위 안에서 자유로운 변형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A 자리에 올 수 있는 모음은 a, e, o 등이다. 자음과 마찬가지로 모음도 나중 단계에서는 차츰 변별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K 자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은 k를 비롯해서 g, c, ch, h 등으로 확대된다. 기본 음절에 새로운 음절이 첨가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리스어로 ‘치다’의 뜻을 지닌 *túptō*는 TAP에 해당한다. 여기서 *ú*가 a와 증가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만지다’를 뜻하는 독일어 *tupfen*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년 소쉬르는 *túp*-에서도, *tup*-에서도 오직 TAP에서 울려 퍼지는 관념의 소리만을 들었던 것이다. 그리스어 *stémphō*(도장, stamp)는 좀 더 복잡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단어의 기본 어근 역시 TAP이다. 다만 초성 자음 s의 영향으로 t의 발음이 강화되고, a가 e로, p가 m으로 변형을 겪는다. 게다가 새로운 음절 *phō*가 첨부되어 있다. 특정한 단어가 위에서 제시된 특정한 기본어근의 유형으로 분석된다는 것은 『시론』의 가설을 입증해주는 훌륭한 증거다. 문제는 *stémphō*의 경우처럼 분석 과정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이러한 증거의 힘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단어가 위에서 제시된 모든 기본어근으로 환원될 수 있는 개연성이 동시에 높아진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소쉬르가 아나그램 연구에서 부딪혔던 문제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소쉬르는 아나그램의 시작법이 비의적 전통에 의해 계승됐다고 간주하고 그 비밀을 파헤치고자 했다. 문제는 그가 세운 가설을 반증이 아니라 입증하는 증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시에서 특정한 신의 이름이나 장소의 이름만이 아니라 분석가에 따라 온갖 이름들을 모두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결과적으로 가설은 가설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만다.

2001년 6월 23일자 제네바 일간 신문의 기사 제목처럼 “천재 언어학자는 시인이었다.” 시인이 한 여름 밤의 긴 꿈속에서 그토록 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아래의 목록은 김성도가 『로고스에서 뫼토스까지』에서 정리한 것이다.

KAP: 구멍이 나거나 휘어진 것과 관련된 모든 어휘.

KAT: 감추다, 보살피다, 소중이 헐기다, 간직하다, 명예롭게 하다 등의 의미와 관련된 어휘.

KAR: 머리(우두머리), 힘 등과 관련된 어휘.

PAT: 땅, 견고한 것 등과 관련된 어휘.

PAK: 조정하다, 정리정돈하다, 촘촘히 하다, 꼬집다, 죄다 등의 의미를 가진 어휘.

PAR: 지나쳐 통과하다, 나누다 등의 의미를 가진 어휘.

PAL: 동요, 군중, 식물의 진, 활기, 생명력, 전개발전 등과 관련된 어휘.

TAK: 기술, 예술, 산업 등과 관련된 어휘.

TAP: 전개과정이나 포장 속에 감추어진 것과 관련된 어휘.

TAL: 지지하다, 지니다, 아기를 낳다, 산출하다, 등과 관련된 어휘,

TAR: 동요하다, 운동하게 하다, 진노하게 하다, 손상하다, 별질하다 등과 관련된 어휘.¹⁴⁾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단어들의 뿌리를 찾아 헤매던 1874년 여름 세 개의 자음(k, p, t)에서, 아니 다섯 개의 자음(k, p, t, r, l)에서 울려 퍼지는 관념의 소리를 받아 적은 17세의 소년 소쉬르는 다섯 개의 모음(a, e, i, u, o)에서 울려 퍼지는 관념의 색깔을 받아 적은 17세의 소년 랭보와 무척이나 닮아있지 않은가?

14) 김성도, 『로고스에서 뫼토스까지』, 한길사 p.238

IV. 나오며

2016년은 소쉬르의 사후 저작 『일반언어학 강의』가 출간된 지 정확히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와 스위스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크고 작은 학술대회가 이미 개최되기도 했고 앞으로 개최될 예정이기도 하다.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이 책은 소쉬르가 직접 쓴 것이 아니다. 소쉬르는 책을 쓰기 위해 육필 원고를 작성했지만 결론을 맺지 못했다. 그동안 소쉬르 연구자들에 의해 이러한 중단이 뜻하는 바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이 제시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쉬르의 침묵’, ‘의심’, ‘편지공포증’ 등이 이러한 중단의 함축적 의미를 기술하는 용어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가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 논문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지금까지 논의했듯이 소쉬르는 재현적 사유와는 다른 변별적 환원이라는 새로운 사유의 방식을 도입했고 또한 문자적 또는 용어법적 추상화를 통해 변별적 환원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유의 질서를 열고자 했다. 변별적 환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체계성이라는 조건이 우선 충족되어야 한다. 구조주의는 이러한 조건이 이미 충족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는 과연 타당한 것일까? 소쉬르가 “가치의 문제 전체”를 밝힐 목적으로 예시한 문자 체계는 사실 범례적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인 것이다. 랑그는 알파벳 문자 체계처럼 닫힌 체계가 아닌 것이다. 체계가 열려있다면 변별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a가 b와 구별되지 않는다면 <a, a', a'', a'''.....>의 계열은 무한한 차이화의 과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체계성의 가정이 무너질 때 후기구조주의가 성립한다. 소쉬르의 침묵은 이러한 노출의 결과를 보여주는 증상이 아닐까? 변별적 환원이라는 사유의 움직임이 이러한 무한한 차이화의 가능성 앞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소쉬르가 『시론』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 우유 짜는 여인의 우화를 상기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푸코는 『말과 사물』에서 이러한 세기적 인물의 대표적인 사례로 돈키호테, 벨라스케스, 니체를 언급한다. 돈키호테는 유사의 시대에, 벨라스케스는 재현의 시대에, 니체는 의미의 시대에 각각 속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이들이 세기적 인물의 전범으로 인용된 이유는 한편으로 이처럼 한 세기를 대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 세기의 한계를 동시에 노정했기 때문이다. 돈키호테는 지속적으로 유사의 미혹에 빠짐으로써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세계의 거짓을 폭로하는 희극적인 인물이다. 벨라스케스는 「시녀들」에서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장면을 그리는, 다르게 말해 재현을 재현하는 시도를 선보인다. 재현은 대상을 주체의 시선 앞으로 소환하는 힘이다. 푸코는 재현의 시대를 예고한 이 작품이 재현을 재현함으로써 재현의 대상이 모호해지는 역설적인 움직임을 세밀하게 분석한다. 니체가 의미의 시대를 열었다면 그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이 시대의 무의미성을 잘 포착했기 때문이리라. 바로 이런 이중의 의미에서 소쉬르는 시대적 사상가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소쉬르는 20세기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기의 한계를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감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김방한, 『소쉬르』, 민음사, 1998.
- 김성도, 『로고스에서 뮈토스까지』, 한길사, 1999.
- 김현권, 「소쉬르의 인도유럽어 원시 모음체계 논고와 일반언어학 강의의 방법론적 비교」, 『한글』, 한글학회, 2008, pp.57-99.
- _____, 「소쉬르와 역사언어학적 전통(1)」, 『언어학 제 22호』, 한국언어학회, 1998, pp.191-215.
- 들뢰즈, 이정우 옮김, 「구조주의를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의미의 논리』, 1999, pp. 559-560
- 소쉬르, 최승언 옮김, 『일반언어학 강의』, 민음사, 1990.
- 소쉬르, 지음. 김현권, 최용호 옮김, 『일반언어학 노트』, 인간사랑, 2008.
- 미셸 푸코, 이규현 옮김, 『말과 사물』, 민음사, 2012.
- Choi Yong Ho, *Le problème du temps chez Saussure*, Paris, L'Harmattan, 2002.
- Davis Boy, *Essai pour réduire les mots du grec, du latin et de l'allemand à un petit nombre de raines*, in *CFS* 32, 1978.
- Déguy Michel, La folie de Saussure, in *Critiques* 26, 1969, pp.20-46>
- Jacobson Roman, 'Principes de phonologie historique', in Troubetzkoy, *Principes de phonologie*, Paris, Klincksieck, 1931(1976), pp.315-336
- _____, 'Saussure's unpublished reflexions on phonemes', in *CFS* 26, 1970.
- Joseph E. John, *Saussure*, Oxford, 2013.
- Reichler-Beguelin, Marie-José, Des formes observées aux formes sous-jacentes, in *Présence de Saussure*, 1990, pp.21-37.
- Saussure F. de., *Mémoire sur le système primitif dans les langues indo-européennes*, Leipzig, Teubner, 1879.
- _____,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Edition critique par Rouldolf Engler tome 1. Wiesbaden, Otto Harassowitz, 1967.
- Saussure F. de., *Troisièm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1910-1911)*, d'après les cahiers d'Emile Constantin, *Saussure's Third Course of Lecture on General Linguistics(1910-1911)*, edited and translated by Eisuke Komatsu & Roy Harris, Oxford/New York/Tokyo, Pergamon Press, 1993.

Saussure's Image of thought in *Essai* : the distinctive reduction and literal abstraction

Choi, Yong-Ho

In this paper, what is at stake is not the Saussurean linguistic thought but an image of the latter. A idea or thought constitutes a well defined system but the image of thought reveals a free movement or an unsatisfied questioning before forming that system. The texts I'm going to deal with are as follows: *Essai pour réduire les mots du grec, du latin et de l'allemand à un petit nombre de raines*, *Mémoire sur le système primitif des voyelles dans les langues indo-européennes*,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Those texts were written from 1874 to 1911 for about 40 years. The target of this paper is not to examine them in detail. The thesis I'd like to propose is that Saussure of 17 years old is the same as Saussure of 57 years old. In other words, around those texts the same image of thought is hanging over. Both the distinctive reduction and the literal abstraction are constitutive of those images as I shall demonstrate in this paper. The former is opposed to the thought of representation and the latter provide it with a new order where everything is connected to everything. My claim is that those two imges of thought is hanging over all over the Sassurean texts.

Key word : Saussure, image of thought, distinctive reduction, literal abstraction, Essay

투고일 : 2016. 11. 25. / 심사일 : 2016. 11. 27. / 심사완료일 : 2016. 12. 10.